

지역 소식통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14일까지 신청·접수

정읍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제7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과 신청을 받고 있다. 마감은 오는 14일까지로, 접수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해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동학농민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를 구성, 수상자를 선별하고 오는 5월 12일 열리는 제50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50회를 맞는 뜻깊은 해"라며 "이러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는 예년과 달리 동학대상 수상자를 2명 선정·수여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추천서 1부(소정양식)와 공적조서·공적개요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공적 증빙자료 각 1부를 갖춰 신청 관공과발과(☎063.539-5432)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정읍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과 함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지역연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아동학대 신고의무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위기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비롯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주제로 활발한 토의가 이어졌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정읍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읍벚꽃축제 등 봄축제를 앞두고 6일 안전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를 갖고 행사장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읍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자율방재단,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벚꽃축제 행사장 주변 부스와 특별무대장의 전기시설·가스시설 등 위험 발생 요인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축제기간 상춘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와 불철 산발 예방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고모네장터 신축 이전

유통 비용 절감·생산농가 소득증대 '기대'

정읍시가 6일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고모네장터)을 신축 이전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북변 화해리 60-10번지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을 비롯한 내외규원,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이병태 대표, 품목별 작목반장, 지역농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모네장터는 시비 8억600만원과 국비 1억500만원 등 총 9억800만원이 투입돼 2492㎡의 부지에 건축 면적 248㎡ 규모로 건립됐다.

시는 북변 한교리 산 70-16 면사무

소 옆에서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오던 고모네장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전을 추진해왔다.

고모네장터에서는 앞으로 참여 농가가 직접 당일 생산한 다양한 생산품들을 당일 판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유통경로가 축소되고 유통 비용이 최소화됨은 물론 높은 품질과 신선함, 안전성을 갖춘 생산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물론 소비자들의 건전 먹거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읍에서 생산

되는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을 판매하는 만큼 정읍은 물론 인근 전주와 광주 등 대도시 소비자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여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는 고모네장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로컬푸드 참여농가 400여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에 걸쳐 교육을 갖고 로컬푸드 필요성과 농가 참여방법, 출하요령 등에 대해 안내해왔다.

김 시장은 "앞으로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작거리 장터로 발전시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특산물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황토배기 수박 8년·복분자 선연 7년 연속 수상 '쾌거'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고창 복분자 선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우뚝 섰다.

고창군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 황토배기 수박이 8년 연속 고창 복분자 선연이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 상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개최했으며, 대한민국의 산업·지역·문화부문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다변평가해 국가브랜드를 선정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해당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경쟁성과 등을 기준으로 부문별 후보 브랜드를 선정하고 다음 20일 동안 국내 소비자 2만40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의 항목을 온라인 소비자 조사와 브랜드 전문가의 엄중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 브랜드 부문에서 고창 황토배기 수박이 8년 연속, 고창 복분자 선연이 7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대표 농산물임을 전국에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

기가 됐다.

고창황토배기 수박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핵가족 증가에 맞춰 작은수박을 출시하는 등 시장 대응이 뛰어난 점이 인정을 받았고, 고창 복분자 선연은 지리적표시제 등록, 생산이력제 실시 등 엄격한 품질관리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우정 군수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생산되는 고창 농산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김종규 부안군수, 노인대학 특강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 6일 노인대학 개강식에서 "부안 600년의 정신 잉걸불"라는 주제로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생 120명에게 특강을 가졌다.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회의실에서 이날 강의는 잉걸불 관련 역사적 사건과 600년의 보물 그리고 함께 부르는 노래 순으로 잉걸불과 관련된 일

어난 역사적 사건에서는 백강전투와 개암사 유금신성, 원효 굴, 백산봉기 등을 소개하면서, 부안에 살았던 선조들이 잉걸불 정신을 발휘하여 오늘날 부안을 이렇듯 발전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규는 잉걸불로 지켜낸 600년의 보물에서는 매장 사후 400년만의 영정 복원과 부안 고려청자 1000년만의 복원을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소명은 600년의 부안역사에서 뜨겁게 전해져온 잉걸불을 지키고, 환한 불꽃으로 오르게 하고 고스란히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야 강조하면서 "휴에 살리라"는 곡을 '부안에 살리라'라는 곡으로 개사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초·중·고 대상 생태체험활동 추진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이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지역 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총 14개(초등7, 중등1, 고등6) 학교가 신청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곡탐사트습지 등 5개 핵심지역(운곡탐사트습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탐사트습지)와 생물권보전지역 중심으로 현장체험활동, 환경정화활동, 각종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일 학생들의 지역 우수 자연생태환경과 문화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학교가입 추진을 통해 국내·외 학생들이 교류함으로써 청소년 인성함양과 폭넓은 사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생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 군을 제대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클로버 부모교육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의 표준화된 교육매뉴얼로 영유아 클로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클로버 부모교육'은 아동학대의 80%가 친부모에 의해 일어날 만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특수사업으로 센터별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열린 클로버 부모교육은 영유아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7개월간 관내 어린이집, 드림스타트강당,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소중한 나 △멋진 아이 △정경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아이의 지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대화법 등 올바른 자녀 양육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교육 형태는 강의형 부모교육과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다양하게 진행되며, 원광대학교 류경희 교수를 비롯한 유아교육 전문 강사들이 연중 총 38회에 걸쳐 100여명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부모는 자녀의 모든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이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법과 교육요령을 습득하여 소중한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 좋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한 양육문화를 조성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감싸주듯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94-8980
www.gansanwine.com